자연유산 '사찰경관림' 활용도 높인다

국가유산청, 사찰경관림 홍보대사 범정 스님 위촉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꽃스님'으로 유명한 범정 스님이 불교자연유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불교자연유산 발굴을 활성화하고 국민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8월 13일 나주 불회사(주지 철인 스님)에서 최근 '꽃스님'으로 알려진 범정 스님('보살피다' 지도법사)을 불교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국가유산 중 약 60%는 불교유산이다. 그중에서도 전국 사찰에 자리한 사찰경관림은 오랜 역사를 지닌 자연 수림지로, 천연기념물과 명승지 등으로 보존되고 있는 한국의 자연유산이다.

위촉식에는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 홍보대사 범정 스님,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김지호 전남도청 문화자원과장, 성기홍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 목포대학교, 나주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경훈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올해 5월 출범했다. 최근 자연유산국이 새롭게 신설되어 자연유산정책부터 동식물, 명승 전통 조경, 지질유산이 각자의 독립된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며 "유구한 세월 동안 사찰과 함께한 사찰경관림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가 되는 기후변화의 지킴이다. 불교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 덕분에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장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이 불교자연유산 사찰경관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을 다시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월 13일 나주 불화사서 위촉식
숲길 명상 등 체험프로그램 계획
범정 스님 "국민 정서 함양 노력"

철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그 심각성을 누구나 느끼고 있다. 이에 자연유산 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불회사는 나주 외곽에 있는 작은 사찰이지만 비자나무와 동백숲, 연리지까지, 세간에 알려지면서 숲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도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자연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불교자연유산을 활용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가유산청은 8월 13일 나주 불회사에서 '꽃스님'으로 알려진 범정 스님을 불교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성기홍 사장 직무대행도 축사에서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 여름을 보내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행사는 그 실천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불교방송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불교자연유산림 '명품 숲 30선'을 선정하는 인증작업도 계획하며 앞으로 명품 숲을 활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부 기념식에 이어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범정 스님은 "얼마 전 어른스님께서 '지금까지 사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국민의 정서적 안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사찰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알려야 한다'고 하셨다"며 "그런 마음으로 불교자연유산 홍보대사에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활동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국악 공연과 함께 참가자들은 범정 스님과 불회사 숲길을 거닐며 K-불교명상 체험, 불회사 숲길 안내 등을 진행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관단체와 함께 사찰경관림을 활용한 명상과 한국의 자연유산이 지닌 가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해 용문사, 군장병 템플스테이 MOU

8월 8일 14해감대대와 협약식



남해 용문사가 장병들의 신심안정과 정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8월 8일 경내에서 육군 39사단 14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 안세민 이하 14해감대대)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체결된 협약은 장병들의 심신안정과 정신수양을 통한 정신전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내 관광 활성화 및 상생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14해감대대는 장병들에게 템플스테이 시행 배경, 방법 및 일정을 설명하고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용문사는 장병들의 템플스테이 입소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더 많은 장병에게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문사 주지 승원 스님은 "군장병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내어 주신 대대장님과 군부대 측에 감사드린다"며 "군장병들이 서로 화합하고 더욱 활기차게 군생활을 이어가는 데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태종, 재가불자 한달 수행 결제

8월 7일 구인사 광명전서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8월 7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127회 갑진년 하안거 한 달 수도 결제식'을 봉행했다.〈사진〉

결제식은 오후 9시에 천태종 소속 전국 말사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해제식은 9월 6일 오후 9시에 봉행한다.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스님은 결제 법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청정한 것이 '일심청정'이다. 불자들은 항상 마음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며 "그러지 못하면 근심·걱정이 쌓이게 된다. 마음을 잘 닦아 무상정각을 이루는데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안거 기간 동안에는 종정 도용 스님이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광명전에서 대중설법을 진행한다.

유재상 충정지사장

"마음공부, 학교 수업도 도움되네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연수
경기 · 경남권 교사 16명 참여
마음공부하며 스스로 돌아봐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스스로 마음의 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이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괜찮지 않아도 돼!'를 개최했다. 8월 5~7일, 8월 12일까지 총 30시간 진행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스스로 마음의 힘을 알고 자신을 바르게 보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연수는 경기·경남권 교사 16명이 동참했으며 강의뿐 아니라 실습과 토론 등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호응을 얻었다.

숙박형 2박 3일 동안 진행된 연수는 김민선 서종초등학교 교사의 '고정관념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과 혜서 스님, 혜환 스님의 '마음을 여는 대화' '괜찮지 않아도 돼!' '촛불명상' △한마음 출판부 혜교 스님의 '주인공으로 살아요' △최명희 경북대 강사의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박옥남 경남 한마음인성교육연구회 연구원의 '마음의 원리' △차희원 통영중학교 교사의 '자유로운 나', '무지의 자각' △박훈 한마음과학원 팀장의 '아름다운 고백(Go Back)' 등의 교과목이 운영됐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8월 5~7일, 8월 12일까지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괜찮지 않아도 돼!'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의 중심에는 주인공 관법이 있다. 주인공 관법을 통해 일생생활에서 자신의 근본인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며 실천 수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교과 및 학생지도, 학급운영을 포함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문제 상황을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내 뜻대로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참가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연수 과정에서 들었던 죽음에 대한 강의에서도 깊이 생각해보며, 지금의 삶을 점검하고, 마음을 한층 비울 수 있는 연수였다"고 답했다.

이번 연수 자리를 마련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익히 들어왔다"면서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여름, 겨울마다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맞는 마음공부 프로그램 연수를 개발·보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미륭당 월탄 대종사 2주기 열반 다례재

8월 10일 청주 용화사 경내서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미륭당 월탄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다례가 엄수됐다.〈사진〉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8월 10일 경내 용화보전에서 '미륭당 월탄 대종사 2주기 열반 다례재'를 열어 스님의 발자취를 기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 은해사 조실 법타 대종사, 법주사 설조 대종사,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법주사, 단양 대흥사, 청주 용화사에 은사스님 비를 모셨고 내년에 제막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국제전법단 '선연 4기' 진행

8월 8~10일 서산 보원사서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정범 스님, 보원사 성역화추진위원장)이 개최한 '선연4기 불교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이 8월 8~10일 서산 보원사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사찰 경내 텐트에서 야영하는 '캠플(Camp+Temple)스테이'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의 불교종립학교(동대부여고, 동대부선화고, 광동고, 청담고 등)에서 모인 25명의 학생은 각 학교 교법사들의 지도에 따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선연4기 참여 학생은 "좋은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 즐겁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 무등산 증심사 지역후원기금 전달

동구청에 2000만원 기부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가 어려운 지역사회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후원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증심사는 8월 14일 광주 동구청(청장 임택) 구청장실에서 '무등산 증심사 지역사회 자비실천-동구민 The행복+사업비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중현 스님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현안에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게 공양올립니다"

마산 정법사, 승보공양법회
8월 11일 정법사 만불전서
통도사 율원스님 승보공양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백중 6재를 맞아 승보공양 및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마산 정법사는 8월 11일 경내 만불전에서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등 율원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렸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박희순)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에 각각 백미 1000kg을 전달했다. 이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유기견 사료지원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행사는 불공의식 후 총무 명원 스님의 사회로 주지 광우 스님의 인사말, 1부 자비나눔, 2부 승보공양 법회로 이루어졌다.


마산 정법사는 8월 11일 경내 만불전에서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등 율원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렸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중을 맞아 불자들이 보시한 공양미가 많아져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덕분에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과 긴급구호가 필요한 적십자사에 자비의 쌀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와 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유기견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기도 하고 또 불교와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불자들의 동참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승보공양 법회에는 정법사 신도운영위원회(신도회장 김선정)가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한 율원스님 16명에게 의약품 등을 공양했다. 정법사 영축다도회는 고려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구를 복원, 차공양을 올렸다.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은 "우란분절 법회를 통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승보공양과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오늘 승보공양의 모습이 한국불교를 보다 청정하게 만들어, 많은 감동을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담양 보리암 불교문화유산 조명하다

보리암, 8월 13일 학술대회



담양 보리암(주지 원융 스님)은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오암 스님), 담양군(군수 이병노)과 함께 8월 13일 담양문화원에서 '담양 보리암 불교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보리암은 CNN이 선정한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국제명상센터 건립을 추진 하는 등 최근 담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통사찰이다.

보리암 주지 원융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보리암의 종합정비 계획을 구축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